

G-Welfare Brief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발행인 : 진석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50 신관 3층 | Tel. 031-267-9368 | <https://ggwf.gg.go.kr>

vol. 08

2019.10.10.

ISSN 2671-7174



경기도 빈곤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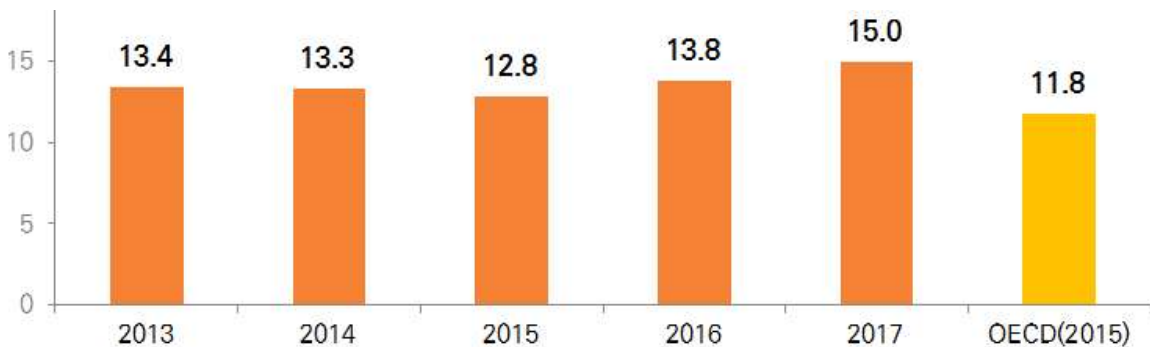
- 경기도민의 빈곤율은 2018년 현재 19.1%이며, 시군별로는 연천군(43.7%)이 가장 높고 오산시(13.5%)가 가장 낮음
 - 빈곤율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상대빈곤의 개념을 사용하며,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
 - 빈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경기도 31개 시군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빈곤에 가장 취약한 노인, 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분석
- 경기도 노인빈곤율은 47.7%이며, 노인가구 유형 및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장애인빈곤율은 47.2%, 1인가구 빈곤율은 48.5%로 전반적으로 빈곤상태가 심각한 상황
 - 노인가구를 노인이 포함된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독거노인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면,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빈곤율(47.7%)이 가장 낮고,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74.9%)이 가장 높음
 - 시군별로 보면 가장 높은 포천시(70.1%)와 가장 낮은 성남시(35.5%) 간 약 2배의 차이가 나며,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이 80%를 넘는 시군이 5개(의왕시, 안산시, 연천군, 포천시, 화성시)에 달하여 매우 심각함
 - 경기도 장애인빈곤율은 47.2%이며, 군포시가 33.4%로 가장 낮고 여주시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율이 50%를 넘는 시군이 14개에 달함
 - 장애인빈곤율은 노인빈곤율에 비해 약간 낮은 상황이고, 시군 간 격차는 노인빈곤만큼 크지 않은데,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빈곤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빈곤율을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합산한 결과 안양시가 가장 양호하고, 여주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1인가구 빈곤율은 48.5%이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년가구의 고독사 등을 고려하여 이들 가구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빈곤율은 30.4%로 근로능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
- 경기도 빈곤율은 전국에 비해 높음에도 정부로부터의 공적 지원을 받는 비율이 낮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가 1.5%에 달하여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
 - 사각지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국가로부터 수급혜택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미만에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66,903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들이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 1) 복지대상자 선정 시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이 경기도의 높은 지가(地價)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 2) 위기상황임에도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형 기초보장사업으로 확대 개편이 필요

I. 빈곤, 왜 문제인가?

□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2017년 현재 15.0%로 5년 전에 비해 10.6% 증가하였고, OECD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과제

- 빈곤은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며, 대개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 절대빈곤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품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소득 수준이 하에 놓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나라별·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빈곤상태를 비교하는데 한계 존재
 - 상대빈곤은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생활수준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구성원의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에 놓여 있으면 빈곤한 상태로 정의
 - 주관적 빈곤은 사람들이 스스로 빈곤하다고 느끼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빈곤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제외
-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대빈곤율은 12%에서 13% 사이였으나, 2017년 15.0%로 급속하게 증가
 - 2015년 OECD의 상대빈곤율은 11.8%로 같은 해 우리나라 빈곤율인 12.8%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은 심각한 수준

〈그림 1〉 우리나라 상대빈곤율 추이(2013~2017)



자료 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 빈곤통계연보」 (원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2 : OECD 값은 보건복지부(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원자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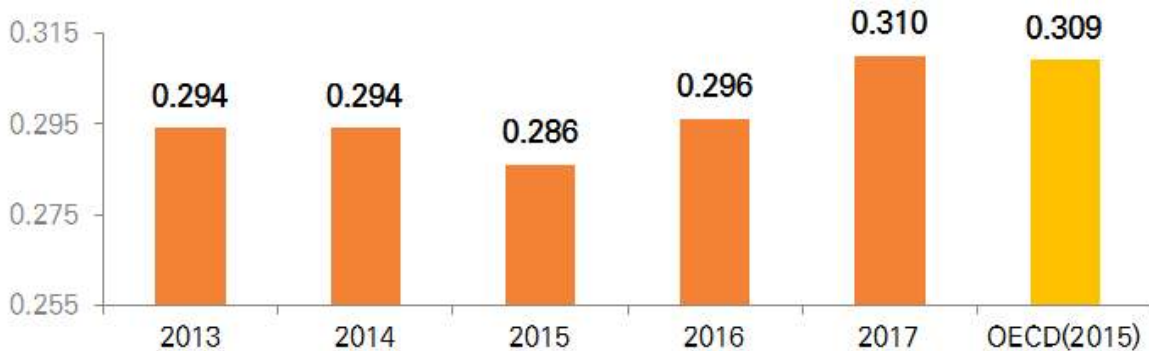
주 1 :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 가처분소득 기준

주 2 : 2017년 자료는 4분기 평균 상대빈곤율의 평균임

- 빈곤이 심화되면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등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
 -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 계층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3%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

- 세계 70여 나라의 소득과 자산불평등 자료를 한데 모은 '세계불평등 데이터베이스' (WID.world)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중반까지 20%대에 머물다가 1995년 30%, 2006년 40%를 넘어섰고, 2015년 48.5%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후 2016년 현재 43.3%로 집계¹⁾
- 이 같은 상황은 미국(47% · 2014년)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보다 높은 수준이며, 특히 프랑스(32.6% · 2014년) 등 유럽 국가가 30%대 초중반에 머무는 것과 대조적
-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2017년 0.310으로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고, 빈곤의 대물림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

〈그림 2〉 우리나라 지니계수 변화 추이(2013~2017)



자료 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8 빈곤통계연보」 (원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 2 : OECD자료는 보건복지부(2018),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8」 (원자료 : OECD, Stat,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주 : 가처분소득 기준

□ 빈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주민의 거주 지역에서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므로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실태 파악하고, 빈곤에 가장 취약한 노인, 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분석

- 빈곤은 가구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 경험하게 되는데,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일자리 참여 여부에 따라 빈곤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근로가능성이 떨어져 외부의 지원 없이 빈곤의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빈곤 탈출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 동원에 많은 제약이 존재
 - 빈곤의 정책 대상은 빈곤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우려가 있는 가구로 아동가구나 한부모 가구, 다문화가정 등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에 집중
 - 다만, 최근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여 1인 가구 빈곤율도 분석함
-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주거, 문화, 의료 등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충족시키는 다차원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하지만, 본 연구는 소득을 중심으로 31개 시군의 노인과 장애인, 1인 가구의 빈곤 상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함

1) 한겨레, “한국, 상위 10% 소득집중도 대다수 선진국보다 높아”, 2018.11.25. 보도자료

2. 경기도 빈곤 실태

□ 경기도 빈곤율²⁾은 2018년 기준 19.1%로 전국에 비해 높은 편이며³⁾, 시군별로 연천군이 가장 높고, 오산시가 가장 낮게 나타남

- 2018년 현재 경기도 절대빈곤율은 15.8%이고, 상대빈곤율⁴⁾은 19.1%로 전국(15.0%)이나 OECD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
- 시군별로 보면,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연천군으로 각각 38.2%와 43.7%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오산시로 9.8%와 13.5%임
 - 상대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가평군, 안성시, 여주시, 양평군 등으로 주로 농촌지역이며, 낮은 지역은 성남시, 시흥시, 군포시, 안양시 등 도시 지역
 -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의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는데, 남양주시와 평택시의 빈곤율은 안성시나 여주시를 제외한 다른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지역은 최근 신규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빈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는 판단됨

〈그림 3〉 경기도 시군별 빈곤율(2018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 2) 분석자료는 경기복지재단(2018)의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이며, 빈곤율은 어떤 소득(시장·경상·가처분) 값을 활용하는지에 따라 상이하게 산출될 수 있어, 본고에서는 경상소득(시장소득에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등 2개를 모두 산출함
- 3) 전국 자료는 2016년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경기도는 2017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므로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빈곤율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기도 빈곤율이 전국에 비해 높다고 판단함
- 4) 절대빈곤율은 국가가 매년 정하는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이하에 있는 가구의 비율로 산출하였고, 상대빈곤율은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의 비율로 산출함

□ 경기도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각 40.0%와 47.7%이며, 노인가구 유형⁵⁾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노인가구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독거노인가구이며,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⁶⁾은 각각 58.5%와 74.9%이며, 가장 낮은 유형은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노인가구’임
 -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의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은 각각 40.0%와 47.7%로 가장 낮는데, 근로할 수 있는 가구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기 때문
 -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의 경우도 노인 외에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빈곤율이 두 번째로 낮음
 - 이에 비해 ‘노인만 거주’하고 있거나 노인 혼자살고 있는 ‘독거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각각 54.3%, 58.5%이고, 상대빈곤율은 65.9%와 74.9%로 매우 심각한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시군별로 노인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포천시(70.1%)로 最高이고 성남시(35.5%)가 最低이며,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율을 기준으로 보면, 절대빈곤율은 의왕시(72.4%)가 상대빈곤율은 여주시(87.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독거노인가구 중 절대빈곤율이 70%를 넘는 시군은 안산시(72.1%), 여주시(71.4%), 양평군(70.5%)이며, 상대빈곤율이 80%를 넘는 시군은 의왕시(85.5%), 안산시(84.4%), 연천군(83.0%), 포천시(82.8%), 화성시(81.1%) 등으로 나타남
 -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상태가 심각한 지역은 의왕시, 여주시, 안산시이며, 특히 안산시의 의왕시, 포천시는 빈곤상태가 양호한 ‘노인이 있는 가구’와 ‘노인가구주 가구’의 빈곤율도 50%를 넘어 전반적으로 노인빈곤상태가 심각한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또한 ‘독거노인가구’보다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은 지역이 있는데,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주시, 구리시, 양주시, 가평군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아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공적지원 정책이 더 많이 추진되기 때문으로 판단됨

5) 노인가구 유형은 65세 이상 노인이 1명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노인가구’라고 하고, ‘노인가구주가구’는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를 의미하며,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는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독거노인가구’는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로 정의하고 각 유형별로 빈곤율을 산출함

6) 노인가구의 절대빈곤율은 정부가 정한 가구원수 별 최저생계비 이하에 속한 유형별 노인가구의 비율로 산출하였고,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경기도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 50%미만에 속한 유형별 노인가구의 비율로 산출함

〈표 1〉 노인가구 유형별 빈곤율(2018)

(단위 : %)

	노인이 있는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		독거노인가구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절대빈곤율	상대빈곤율
경기도	40.0	47.7	42.5	50.7	54.3	65.9	58.5	74.9
수원시	42.5	50.2	44.9	53	53.1	64.1	57.3	69.5
성남시	28.0	35.5	30.6	38.6	46.2	58.4	54.6	70.9
고양시	41.8	49.9	45.0	53.8	59.7	72.8	58.5	79.5
용인시	32.5	41.4	33.4	42.6	44.8	59.5	51.9	74.2
안양시	29.0	36.3	31.8	39.5	44.2	55.2	49.2	65.7
부천시	39.6	46.7	41.5	48.9	55.8	66.5	61.1	78.9
안산시	50.1	56.4	52.4	59.1	66.1	75.2	72.1	84.4
남양주시	49.6	57.8	51.6	59.1	63.8	73.4	67.2	79.7
화성시	47.0	52.3	49.2	55.0	62.0	69.2	69.7	81.1
의정부시	43.2	47.4	46.8	51.8	57.8	64.1	55.2	62.0
평택시	47.8	53.8	50.2	56.7	60.5	67.7	67.7	78.8
시흥시	35.4	45.4	37.2	48.4	48.5	65.2	46.2	71.4
파주시	39.7	50.7	42.5	54.4	50.1	66.3	50.5	76.3
광명시	44.7	51.0	46.7	53.5	59.6	68.4	66.6	78.0
군포시	34.5	41.0	37.0	43.7	47.2	56.7	61.0	71.1
김포시	48.4	58.3	51.2	62.1	60.5	73.8	57.6	75.7
광주시	32.8	43.9	34.7	47.5	37.7	58.7	24.6	54.8
구리시	41.8	46.6	45.5	50.7	64.8	72.7	58.9	72.5
오산시	31.5	38.2	33.5	40.6	44.5	53.5	46.8	63.3
하남시	28.1	38.8	30.9	43	40.7	62.8	43.5	76.3
이천시	31.7	40.5	34.8	44.9	46.4	62.5	49.2	75.0
양주시	45.1	55.3	48.2	59.2	54.1	69.5	50.0	73.8
의왕시	50.4	59.5	52.6	62.2	59.0	71.1	72.4	85.5
안성시	41.7	48.5	42.7	49.8	51.2	61.1	66.9	79.7
포천시	68.3	70.1	69.0	70.7	76.7	78.1	80.8	82.8
여주시	49.6	56.2	53.2	60.3	69.0	81.4	71.4	87.3
양평군	41.9	49.7	47.4	56.1	56.3	65.7	70.5	77.5
동두천시	37.5	49.1	39.6	51.9	45.6	60.8	52.9	72.8
과천시	37.2	41.4	38.6	43.1	53.1	58.9	62.2	69.4
연천군	50.3	57.8	52.7	60.6	59.3	70.7	66.1	83.0
가평군	54.4	60.9	57.6	64.7	63.7	71.6	63.4	7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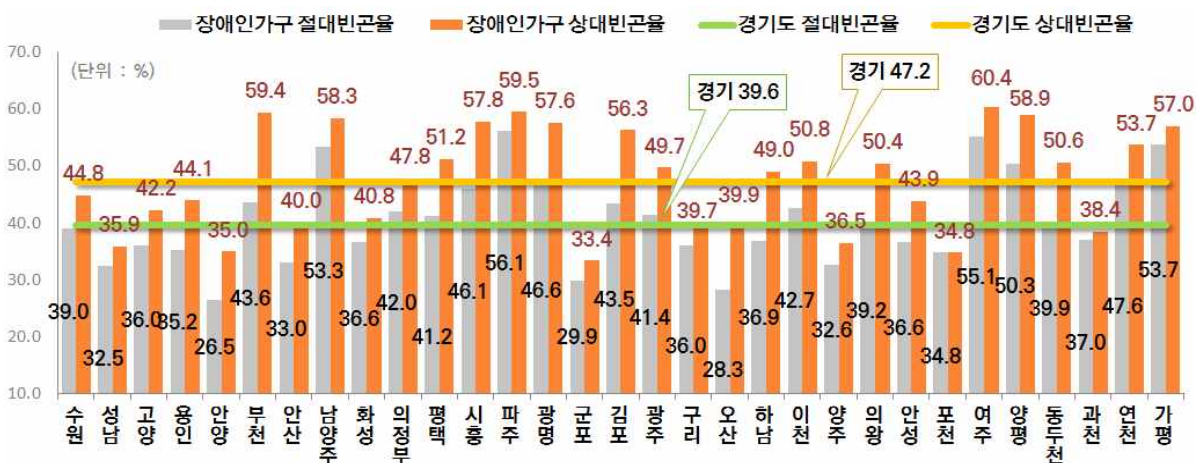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 경기도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태는 절대빈곤율이 39.6%, 상대빈곤율이 47.2%로 노인못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며, 시군별로 절대빈곤율은 파주시, 상대빈곤율은 여주시가 가장 높음

○ 상대빈곤율은 군포시가 33.4%로 가장 낮은 반면, 여주시가 60.4%로 가장 높은데, 파주시(59.5%), 부천시(59.4%), 양평군(58.9%), 남양주시(58.3%), 시흥시(57.8%), 광명시(57.6%), 가평군(57.0%), 김포시(56.3%) 등 50%를 넘는 시군이 14개에 달하는 상황

- 절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시(26.5%)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파주시로 56.1%이며, 여주시(55.1%), 남양주시(53.3%), 가평군(53.7%), 양평군(50.3%)이 50%를 상회
- 지역별로 보면, 장애인의 빈곤율이 높은 지역은 파주시, 여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며, 낮은 지역은 군포시, 포천시, 안양시, 성남시
- 장애인빈곤율이 낮은 지역은 장애인 비율이 적거나, 전체 가구 수가 많아서 장애인빈곤가구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4〉 경기도 시군별 장애인가구 빈곤율(2018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 31개 시군의 전반적인 빈곤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율에 순위를 매겨 합산한 결과 안양시가 가장 양호하고 여주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상대빈곤율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빈곤율, 노인가구 빈곤율, 장애인가구 빈곤율이 낮은 지역 순서대로 순위를 1위부터 31위까지 매겨 3개 빈곤 순위를 합산
 - 빈곤 순위 합산 점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안양시이며 성남시, 오산시, 군포시, 과천시 순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여주시로 그 다음은 연천군, 남양주시, 가평군, 의왕시 순
 - 남양주시와 의왕시는 도시 지역임에도 빈곤율 순위 합계가 높게 나타났는데, 최근의 빈곤율 변화 경향 파악을 통해 원인 규명이 필요
- 노인빈곤 순위는 4개의 유형별 노인가구 빈곤율 순위를 합산한 것으로 안양시가 가장 양호하고 오산시, 성남시, 군포시 순이며, 가장 열악한 지역은 포천시이며 여주시, 의왕시, 안산시 순으로 나타남
 - 농촌지역의 경우 전체 빈곤 순위 합산에서 최하위 수준인 것과 대조적으로 노인 빈곤 순위 합산 수준은 중간 내가 중하위 수준인데, 농업에 종사하면서 일정정도 소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2〉 경기도 시군별 빈곤율 순위(2018)

	전체 빈곤순위(A)	노인빈곤 순위					장애인 빈곤순위(C)	전체 순위 (A+B+C)
		노인이 있는 가구	노인가구주 가구	노인만 거주가구	독거노인 가구	노인순위 소계(B)		
수원시	11	18	16	12	6	52	14	77
성남시	2	1	1	4	7	13	4	19
고양시	13	17	18	26	23	84	11	108
용인시	8	7	4	7	13	31	13	52
안양시	5	2	2	2	4	10	3	18
부천시	15	12	11	17	22	62	29	106
안산시	16	25	23	29	29	106	9	131
남양주시	26	26	24	27	24	101	27	154
화성시	7	21	20	20	26	87	10	104
의정부시	24	13	14	13	2	42	15	81
평택시	25	22	22	18	21	83	21	129
시흥시	3	10	10	14	9	43	26	72
파주시	22	19	19	16	17	71	30	123
광명시	21	20	17	19	20	76	25	122
군포시	4	6	7	3	8	24	1	29
김포시	20	28	28	28	16	100	23	143
광주시	9	9	9	5	1	24	17	50
구리시	10	11	13	25	10	59	7	76
오산시	1	3	3	1	3	10	8	19
하남시	12	4	5	11	18	38	16	66
이천시	14	5	8	10	14	37	20	71
양주시	18	23	25	21	12	81	5	104
의왕시	17	29	29	23	30	111	18	146
안성시	29	14	12	9	25	60	12	101
포천시	23	31	31	30	27	119	2	144
여주시	28	24	26	31	31	112	31	171
양평군	27	16	21	15	19	71	28	126
동두천시	19	15	15	8	11	49	19	87
과천시	6	8	6	6	5	25	6	37
연천군	31	27	27	22	28	104	22	157
가평균	30	30	30	24	15	99	24	153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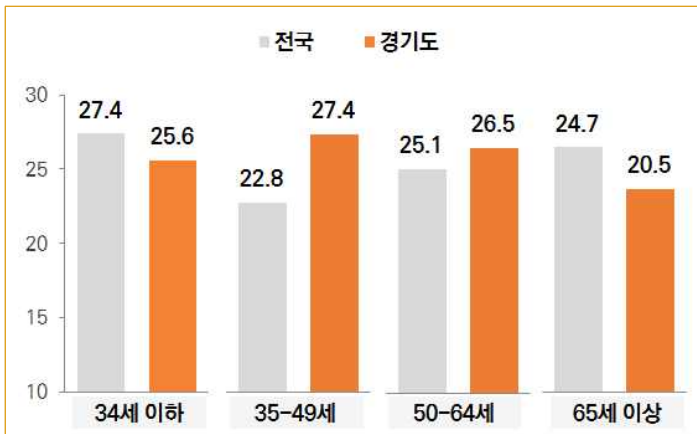
주 : 빈곤순위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한 것으로 순위가 낮을수록 빈곤율이 낮은 것을 의미함

□ 1인가구의 빈곤율은 절대빈곤율 36.3%, 상대빈곤율 48.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지역 별로는 포천시(56.4%)와 의왕시(64.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생애주기별로 특성에 차이가 있어 구분하여 분석하여야 하지만, 자료 등의 한계로 1인 가구 중 고독사 등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중년과 노년을 중심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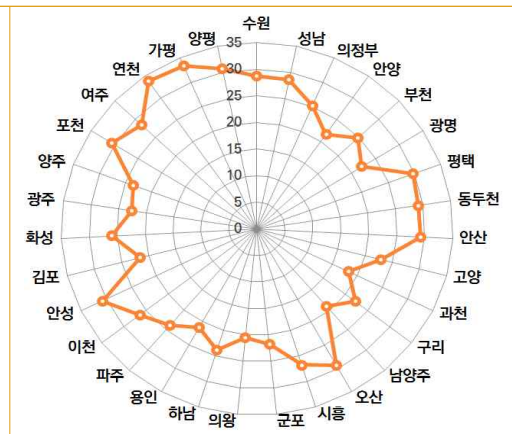
- 1인 가구를 청년(34세까지⁷⁾), 장년(35~49세), 중년(50~64세), 노년(65세 이상) 등 생애 전환기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전국의 경우 34세 이하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는 35~49세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64세임
- 본고는 50~64세까지의 중년 1인 가구와 노년 1인가구를 중심으로 빈곤실태를 분석하되, 노년 1인 가구는 이미 독거노인가구를 통해 살펴보았으므로 중년 1인 가구에 집중

〈그림 5〉 전국 및 경기도 1인 가구 연령별 비중(2018)



자료 : 통계청, 주제별통계 “연령별 1인가구-시군구”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3_01&vwcd=MT_GTITLE01&parmTabId=M_01_03_01#SelectStatsBoxDiv

〈그림 6〉 경기도 시군별 1인 가구 비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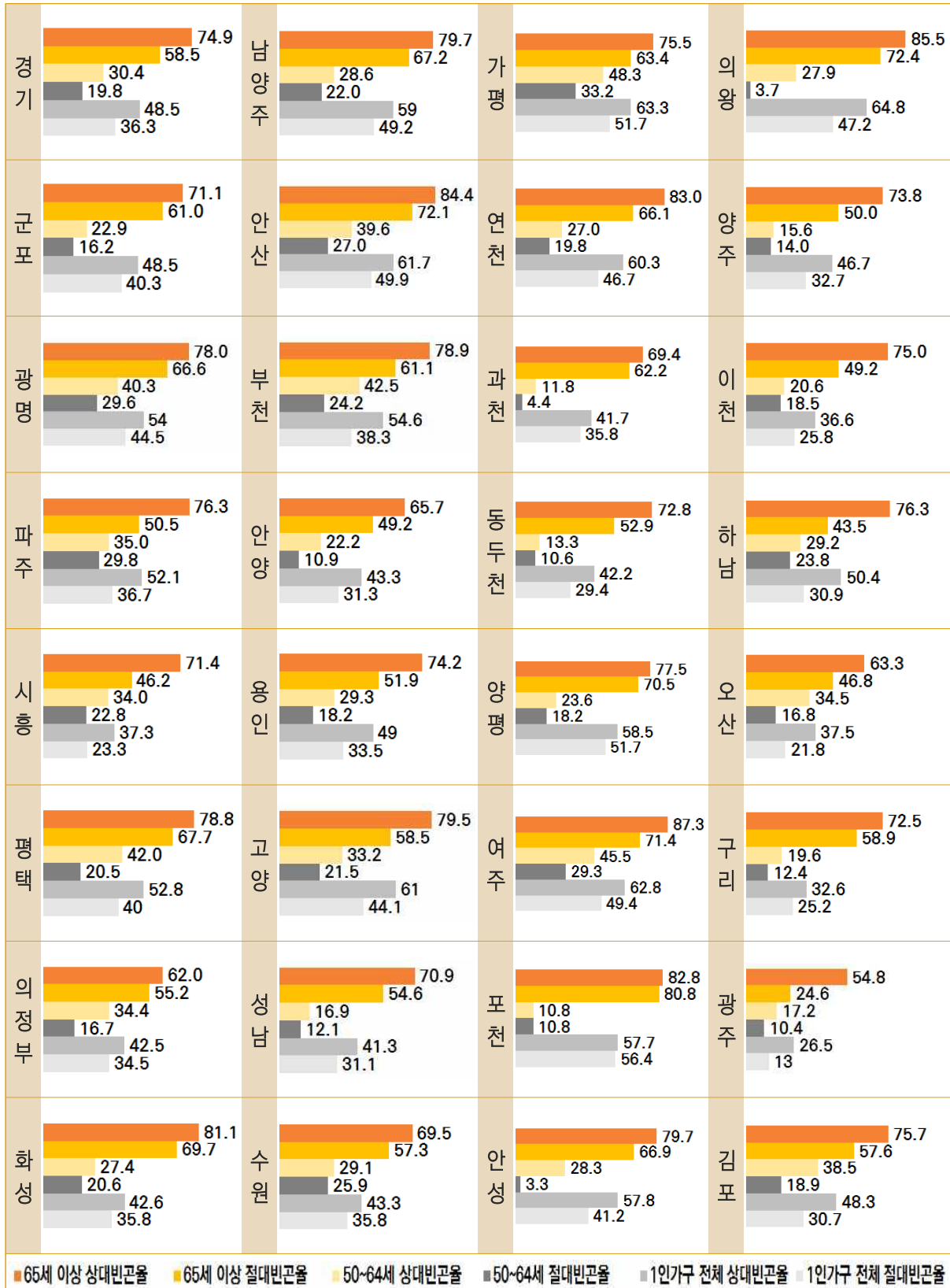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e-지방통계 “1인가구비율”
출처 :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I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 중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절대빈곤율 19.8%, 상대빈곤율 30.4%로 전체 1인 가구 빈곤율 및 노년 1인가구 빈곤율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만, 근로소득이 가능한 시기임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
-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산가능한 연령대이지만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 연령이 49.1세이고, 퇴직 때까지 근무한 비율이 7%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⁸⁾를 근거하면, 이 같이 높은 수준의 빈곤율은 이해가 되는 수준
- 중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평군으로 절대빈곤율 33.2%, 상대빈곤율 48.3%이며, 부천시, 평택시, 광명시, 여주시 등은 상대빈곤율이 40%를 넘는 지역임
- 지역별로 1인 가구 빈곤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절대빈곤율 포천시 56.4%, 상대빈곤율 의왕시 64.8%이며, 농촌지역 외 도시지역의 빈곤율이 높은 것이 특징
- 고양시, 안산시, 의왕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은 절대빈곤율이 40%이상, 상대빈곤율은 60% 이상인 지역으로 농촌지역 외 대도시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에서도 빈곤한 1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

7) 청년의 연령은 관련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에 근거하여 34세까지로 함

8) 산업은행연구원(2018). 「고령자 고용의 현황과 시사점」, 중앙일보(2018. 12. 3) “주 일자리 은퇴나이 평균 49.1세”...고령자 상당수가 재취업하는 곳은 보도자료 재인용

〈그림 7〉 경기도 시군별 전체 및 중노년 1인 가구 빈곤율(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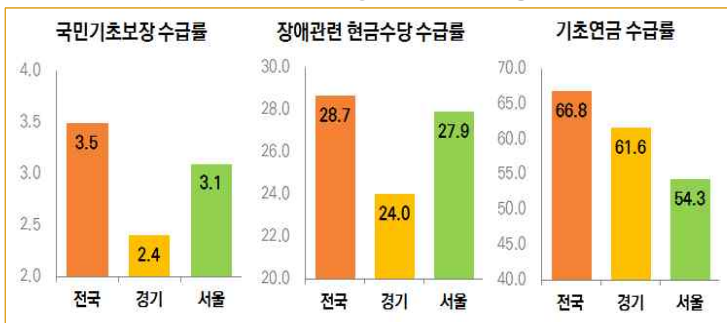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 경기도 빈곤율은 전국에 비해 높음에도 정부 수혜 비율은 낮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가 1.5%에 달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간 생활수준 격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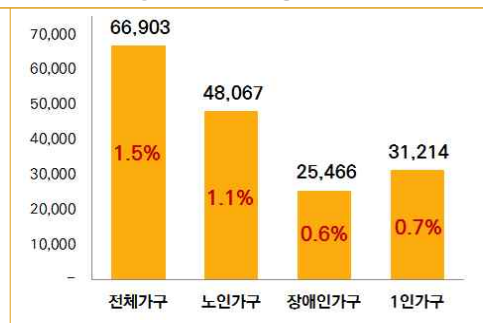
○ 사각지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⁹⁾하였지만 국가로부터 수급혜택을 받지 못한 최저생계비 미만에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전체 가구 중 1.5%인 66,903 가구가 사각지대 가구

- 국가로부터의 현금성 수혜를 받는 비율을 전국 및 서울과 비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과 장애인 수당 등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기초연금은 수급률은 서울과 세종 다음으로 낮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
- 대상별로 사각지대 규모를 추정해 보면, 노인가구가 1.1%(48,067가구)로 사각지대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1인 가구(0.7%), 장애인가구(0.6%) 순으로 나타남
 - 장애인가구의 사각지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장애인 등록제 등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망 안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8〉 3개 현금성 복지 수급현황 비교



〈그림 9〉 경기도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규모



자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2019.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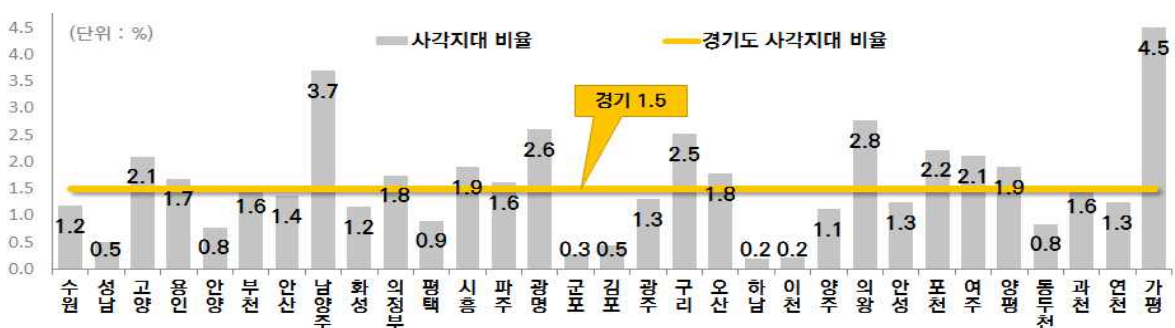
주 : 장애관련 현금수당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이 포함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주 : 가구 수는 전체 가구에 가구유형별 사각지대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지역별로 보면, 가평군의 사각지대 비율이 가장 높고, 남양주시, 의왕시, 광명시 순이며, 남양주시와 광명시, 의왕시 등은 빈곤율도 높아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한 지역

〈그림 10〉 경기도 시군별 사각지대 규모 추정 비율(2018년)



자료 : 경기복지재단(2018), "경기도민 복지욕구조사"

9) 경제적 어려움 경험 가구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월세 연체 경험', '공과금 또는 관리비 미납 경험', '공교육비 미납 경험', '식사를 거른 경험' 등의 7가지 항목에 1개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구를 의미함

3. 정책적 시사점

□ 빈곤은 소득과 직결되므로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

- 복지대상자 선정 시 적용하는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경기도의 높은 지가(地價)¹⁰⁾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 실제 주거비용을 바탕으로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이 필요
 -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특·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최대 9만여 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고, 2만2천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3만4천여명의 기초연금 급여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음¹¹⁾
-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위기상황임에도 여전히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위기가구를 위한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경기도형 기초보장사업으로 확대 개편
 - 현 무한돌봄사업은 2008년부터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시작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으로 도민의 기본(기초)생활보장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러나 타 지자체 사업에 비해 다양하고 높은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의 보충적 성격으로 의의가 높으나, 차별성 부족,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단기적으로는 현 무한돌봄사업을 지속하여 긴급지원제의 사각지대 해소로서 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가구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 장기적으로는 일시적 위기가구 지원정책의 대상자·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와 함께 빈곤가구 정책으로 생계급여 중심의 기초보장사업을 포괄하는 형태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
 - 이를 통해 긴급지원제와 기초생활보장제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형 사각지대 토탈 지원정책(total care system)으로 전환 유도

10) 한국감정원의 2018년 평균 주택매매가격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16개 시는 6개 광역시 평균보다 높고 양평군과 가평군은 타 도(道)의 시(市)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도(道)라는 이유로 아래 표의 기본소득공제 기준 중 중소도시 기준의 공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의 복지 수혜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

구 분	공제액(만원)	
	기초연금·장애연금·긴급지원 등 6개	기초보장수급·장애아동수당·한부모가족지원 등 8개
대도시	13,500	5,400
중소도시	8,500	3,400
농어촌	7,250	2,900

11) 경기도·경기복지재단(2019).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자료집